기자들의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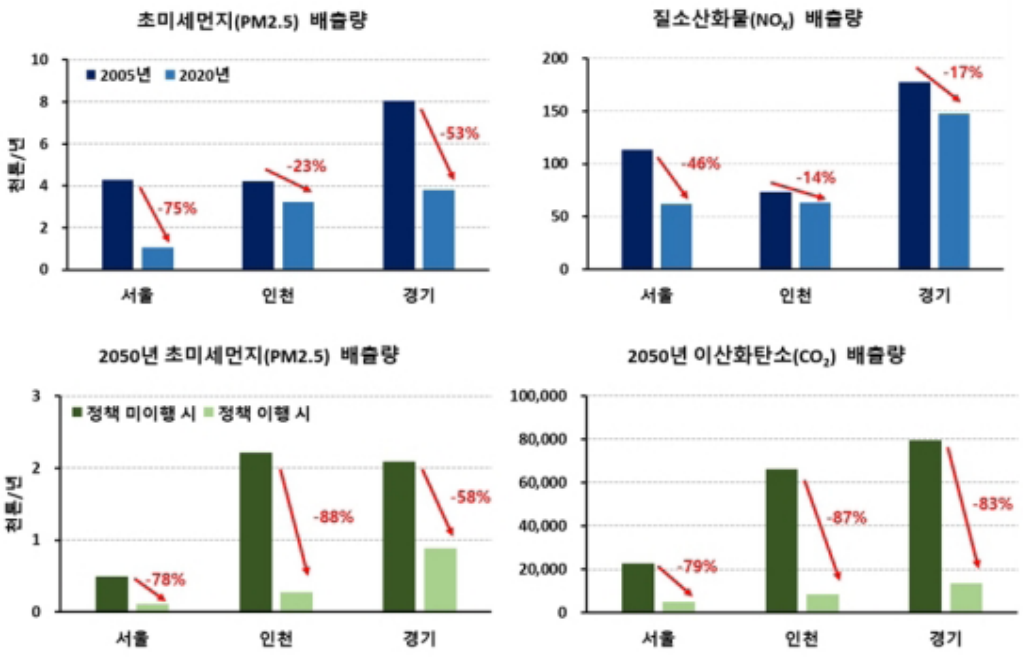
ijournalist.co.kr

2023년 5월 30일(화요일)

일간 인터넷판 제96호 TEL 032-433-8081

수도권, 대기질 개선… 국제사회 인정 받아

유엔환경계획과 공동보고서 발표
방콕서 '2023 국제 콘퍼런스' 개최
초미세먼지 배출량 최대 75% 감소



서울,인천,경기 대기질 지표 /인천시

수도권 3개 시·도의 대기질 개선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는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정책 성과와 전망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3개 시·도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020년 12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공동평가 협정을 체결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관으로 스톡홀름환경연구소와 3개 시·도 연구기관이 2년간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특히, 스톡홀름환경연구소는 환경 및 개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연구보고서의 주저자로 참여했으며, 3개 시·도 연구원(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보고서는 2005년부터 2020년 동안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로 대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지역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서울은 75%, 인천은 23%, 경기는 53% 줄었으며, 질소산화물(NOx)은 각각 46%, 14%, 17% 감소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제도의 체계적인 구축, 과학적 분석을 통한 배출원별 감축대책 이행,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이 대기질 개선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선도적 발굴하고 시행해 전국단위의 대기오염 감축을 견인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의 경우 '맑은 서울 2010 대책'을 수립하고 2014년 경유 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면 교체했으며, 2017년 전국 최초로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 중이다. 2030년까지 해외 주요도시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9월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하고 운행제한 확대, 전기차 보급 확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인천 또한 수소대중교통체계 진입 가속화를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동시 저감을 목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소트럭 등 1615대를 보급했다. 그리고 2024년까지 700대의 수소버스와 2030년까지 52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배출원(항만, 공항, 발전소 등)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Blue sky 협의회' 등 민·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 경기는 2016년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알프스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2020년까지 배출량을 1/3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어 2020년 4월에는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이 혼재되어있는 경기지역 특성에 맞춘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도로 재비산 먼지의 감축을 위해 집중관리도로(구역)을 지정 및 운영 중이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 계획에 따라 이행될 경우, 2050년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의(CO2) 예상 배출량은 각 시도별로 초미세먼지 58~88%, 이산화탄소는 79~87%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인천, 경기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각각 78%, 88%, 58%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9%, 87%, 8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인천·경기와 UNEP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기후 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에서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성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세계 도시와 공유한다. 아울러 '기후 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은 유엔환경계획(UNEP)과 기후 청정대기연합(CCAC)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콘퍼런스로, 국내·외 정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전문가 등 약 6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한다.

3개 시·도는 "그간 수도권 3개 시·도가 추진한 대책들이 성과를 거두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기오염은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해 발생하는 문제로 서울·인천·경기는 앞으로 국가 간의 협력 유도와 개선정책을 공유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윤 기자 cjy6148@naver.com

옹진군 자월도, 청소된 '장골해수욕장 백사장'

인천 옹진군은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식 제공을 위해 자월면 장골해수욕장과 큰말해변 백사장 조개껍데기 제거작업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장골해수욕장과 큰말해변은 자월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달바위 선착장에 인접해있고, 솔밭과 백사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장소이다. 이와 관련, 백사장 정비는 군에서 추진하는 재정일자리 참여자와 함께 면 직원들이 해안쓰레기를 수거했다.

황영미 면장은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섬 다시 찾고 싶은 자월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민 기자 cjm9907@naver.com

삼성바이오로직스, '2023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참가

초격차 경쟁력 통해 글로벌 수주 확대
11년 연속 단독 부스 참가…메인 설치
플라스틱 사용없이 만든 친환경 부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상 부스 이미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최대 바이오 제약 전시회 '2023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 참가한다고 30일 밝혔다.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은 미국 바이오협회 주관으로 미국 내 바이오클러스터가 있는 주요 도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전 세계 바이오제약 업계가 모여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다.

올해는 미국 보스턴에서 '스탠드업 포 사이언스'를 주제로 6월 5일부터 8일까지(현지 시간) 4일간 진행되며 1500여 개의 기업과 1만5000명 이상의 인원이 행사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창사 이래 11년 연속 단독 부스로 참가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시장 메인 위치에 세계 최대 생산능력(총 60만4000리터)에 걸맞는 대규모 부스(167㎡, 50평)를 설치했다. 참가 기업 가운데서는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부스 테마를 '당신의 지속 가능한 파트너'로 정하고 부스의 모든 자재를 나무·돌·천·재활용품 등 친환경 소재로 구성하며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했다. 또 방문객에게는 기존의 브로슈어 인쇄물 대신 QR코드를 통한 디지털 브로슈어, 친환경 기념품, 주트 백(jute bag, 마 소재로 만든 가방)을 제공하는 등 '지속 가능한 CDMO'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알리는 데 집중했다.

부스에는 LED 패널과 월 그래픽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60만4000리터), 위탁개발(CDO) 플랫폼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함께 항체·약물 접합체(ADC)·메신저 리보핵산(mRNA) 등 확장된 포트폴리오를 소개했다. 부스 일부에는 고객사 미팅을 위한 3개의 회의실과 현장 고객 대응을 위한 라운지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활발한 파트너십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전시장 주요 공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배너 광고를 설치하고, 특히 전시장 메인의 입구 계단 전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경쟁력을 알릴 수 있는 문구를 부착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주력했다. 이어 행사 기간의 동안에는 미팅을 진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윤 기자 cjy6148@naver.com

인천시, 신도시 대중교통·원도심 주차공간 늘린다

신규 시내버스 13개 노선, 109대 증차
원도심 1만 5000면 추가 확보에 나서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철도망 구축

공항철도 급행화 노선 /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지역의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과 원도심 주차 공간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민행복 교통대책'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축 아파트 등 입주단지가 밀집된 검단신도시는 입주민이 증가(2023년 3월 말 기준, 2만538세대 5만4055명 거주)하면서 서울 방면 통근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는 서구 검단에서 계양역행 버스의 경우 만석으로 인한 무정차 통과 등 빈번한 교통 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인천시가 관리하는 광역버스 혼잡노선은 직행좌석 7개, 광역급행 3개 등 총 10개 노선이 있다. 또 공항철도는 출퇴근 시 계양~김포공항 구간 혼잡도가 218%에 육박하고, 인천2호선의 혼잡도는 132%에 달한다. 앞으로 입주민이 늘어나 철도 이용객이 증가하면 혼잡도는 더욱 심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도심 지역에는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 원도심지역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74.7%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검단 및 송도 6·8공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교통수요가 증가했음에도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혼잡과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시민행복 교통 대책'을 수립했다.

아울러, 검단신도시 등 신규 입주지역의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입주 추이를 모니터링해 시내버스를 증차하고 노선도 조정한다. 검단지역에는 7개 노선에 15대를 늘리고, 그 외 지역에는 3개 노선에 14대를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재외동포청 개청에 맞춰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6777번이 7월부터 운행된다. 이 노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 이용객이 감소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운행이 중단됐었다. 노선이 재개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재외동포청을 이용하는 재외동포들의 교통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혼잡도 개선과 1단계 증차(6대)에 대한 효과분석과 효율적인 열차 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중장기 수요예측 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적 증차를 추진하고, 열차 탑승 수요 분산과 수송 능력 확대를 위한 다각적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열차 내의 혼잡도에 대한 정량적 관리를 위한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학교, 공원 등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부설주차장 등 공유 활성화를 통해 2026년까지 1만5000면을 추가 확보해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 우선,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3개교를 선정해 총 360억 원으로 300면을 조성한다.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면 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의 약 20%를 국비 지원받을 수 있어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지평식의 계산2, 신포동 공영주차장 등 9개 주차장을 건축물식으로 개축하고, 석남체육공원, 남동근린공원 등 7개 도시공원(면적 3000㎡이상)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해 1772억 원으로 총 2886면의 지하 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철도사업은 전국 주요 도시와 수도권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광역 철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전국 주요 도시 반나절 생활권을 구축하고 수도권 주요 거점 지역을 30분대 연결을 추진한다.

서울 5호선은 지난 3월부터 시행해 2023년 9월 마무리 예정인 사전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인천시에 유리한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광위, 경기도, 김포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제물포 르네상스의 성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철도 순환노선 도입 및 경인전철 지하화도 검토해 추진한다. 그리고 강화해안순환도로, 영종해안도로 등 3개 순환망을 확충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5602억 원으로 도로 단절구간 7개 노선과 주요 간선 도로망 5개 노선(금곡~대곡, 도계~마전 등)을 확충하고 도심내 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간선 도로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시민행복 교통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철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 혼잡 해소 및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원도심의 주차 공간을 대폭 확충하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윤 기자 cjy6148@naver.com

인천관광공사, '2023 그린에너지·환경산업전' 개최

송도컨벤시아서 미래를 보다
국내·외 신규 판로 개척 지원

그린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산업 육성을 위해 '2023 그린에너지·환경산업전'이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본 전시회는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 ㈜글로벌마이스전문가그룹,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이 후원한다.

한편 '그린에너지·환경산업전'은 저탄소 시대 그린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인천 유일의 비즈니스 전시회로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탄소중립 △순환경제 △기후변화&대기 분야 등 국내·외 약 150개사가 참가하여 기술 혁신과 트렌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참가기업의 신규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글로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기업 IR·투자상담회 등 기업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상담회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수자원, 환경기후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 콘퍼런스도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1000여 명의 물 산업 종사자가 참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통합학술대회', 기후금융·기술의 글로벌 트렌드를 다루는 '제10회 국제기후금융·산업 콘퍼런스' 등 다양한 국제 콘퍼런스와 전문 세미나가 개최되어 국내·외 환경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 공유의 장을 제공하고, 참가기업들의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시회 주관기관인 인천관광공사 정재균 팀장은 "참가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윤 기자 cjy6148@naver.com

미추홀구, 민생현장 속 건의사항 보고회 개최

인천 미추홀구는 30일 주민소통 민생현장속으로 건의사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영훈 구청장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실시한 21개 동 민생현장 및 동 리더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부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 건의 사항은 총 146건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교통 및 녹지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지정에 따른 주차 민원 해소에 대한 건의 사항이 많았다. 또 학교 주변 교통, 안전 시설물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재민 기자 cjm9907@naver.com